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제 398 호 2015년 6월 24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호국보훈의 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교사에게 듣는
호국보훈의 이야기

05면 생태·관광
안산시, '나눔숲' 조성 등
'숲의 도시 안산' 만들기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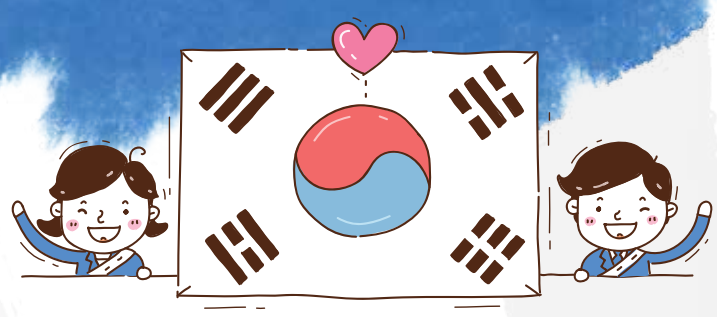
07면 문화·예술
희희낙락 同人展, 세 번째 이야기
바람을 이겨내다!

11면 복지
7월 부터 더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원곡동 현충탑〉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호국보훈의 달 6월, 우리는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교사에게 듣는 호국보훈의 이야기



호국(護國)은 '나라를 지킨다' 라는 뜻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 는 뜻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생각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 기리는 기간으로 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6월이 되면 현충일을 기념하여 각계 각 층에서 행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동에 있는 작은 아동센터를 찾아가 직접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센터에서 마침 흙놀이 수업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생들은 6 · 25전쟁과 호국보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유로운 발언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박연우 (호동초 5)

6 · 25전쟁은 우리끼리 싸운 전쟁이면서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헤어져 살게 만든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면서도 이렇게 통일을 만들지 못한 것은 슬픕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절약하여서 부자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규리 (호동초 5)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싸워도 학교가기 싫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워서 서로 만나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싫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게 만들고 싶습니다.

유채은 (호동초 5)

6 · 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움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아껴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지혁 (호동초 5)

우리가 친구와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나는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준 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헤어져서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일 (호동초 6)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서로를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미워하면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동생과도 가끔 말다툼을 하지만 곧 화해를 하고 지냅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 많은 시간을 헤어져서 말도 안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할 수 있게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웃음을 주면 싸울일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요.

또 우리 부모님께 자랑스런 자식이 되기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재밌게 학교생활을 할 것입니다.

김보람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교사, 26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제일 기쁜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일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배울점이 많이 생깁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목표나 미래를 꿈꾸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방법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뿐 방향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당신의 **나라사랑**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나라사랑큰나무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의 취지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국권회복과 6·25전쟁 등에서 국가수호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젊은이들은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광복 60년, 6·25전쟁 55년이 되던 2005년도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 및 국가발전의 상징으로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에 동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도록 합시다.

나라사랑 큰 나무란?

국가유공자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나라사랑 큰 나무의 상징 내용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

“통일은 먹고사는 문제다”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원에게 듣는 통일 이야기

하이텔 PC통신 시절부터 ‘통일이’란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전준호 시의원은 평소 통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던 사람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0여 년이 훌쩍 지난 현재,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봤다. 그에게 통일은 막연한 당위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돌파구였다.

통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계기?

시의원 낙선 후, 새터민들 정착지원을 돕는 쉼터에서 1년 반 동안 상근하듯 일한 적이 있었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적응훈련을 마친 후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동네에 있었는데, 마침 출석하던 성당 신부님이 그곳을 맡아 실무적인 지원을 도왔다. 아무래도 새터민들이 사회주의시스템에서 왔다보니 우리 사회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은행 이용, 장보기 등도 도왔고, 이사 가는 분들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직접 수거하러 다니며 보급하는 일도 했다. 이런 일들 자체가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남과 북이 서로 만났을 때, 양쪽 사회를 모두 경험한 새터민들이 그 차이를 완충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통일이 중요한 이유?

일단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남과 북이 합쳐지면 내수 규모가 8천만 정도 되는데, 우리도 그 정도의 내수가 있을 경우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한 국가가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으려면 경제적인 내수 규모가 1억 정도는 필요하다. 지금 중국경제 성장의 동력도 기본적으로 13억의 내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무시할 수 없다. 핵 토륨이라는 열전달 물질이 있는데, 북한에 전 세계 매장량의 50%가 있다고 한다. 지금 중국이 이미 북한의 지하자원들을 선점하고 있고, 러시아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다. 셋째,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노동생산성에서 오는 경쟁력이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임금이 한 달에 7만5천 원쯤 되는데, 우리 나라에선 하루 일당도 안 되는 돈이다. 일단 노동원가가 싸고, 북한과 우리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관세가 없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통일이 되면 국방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방비로 매년 약 35조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조금만 줄어도 많은 복지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남북 간의 문제를 경제적인 것부터 풀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게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 고민해보는 통일과제?

먼저, 시민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민족적 과제, 교류협력, 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주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평생학습의 한 과정으로, 남녀노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안산에는 공단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약 8백~9명쯤 살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바른 국가관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최종환氏

올해는 6 ·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한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4명은 6 · 25 한국전쟁의 발발연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보다 약 3.3%늘어난 숫자로 역사인식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1927년생으로 21살이 되던 해에 8 · 15 광복을 맞고 23살에 북한군에 끌려가 수용소 생활을 한 최종환 전 6 · 25 참전유공자회 안산시 지회장을 만나 당시 겪은 전쟁의 참상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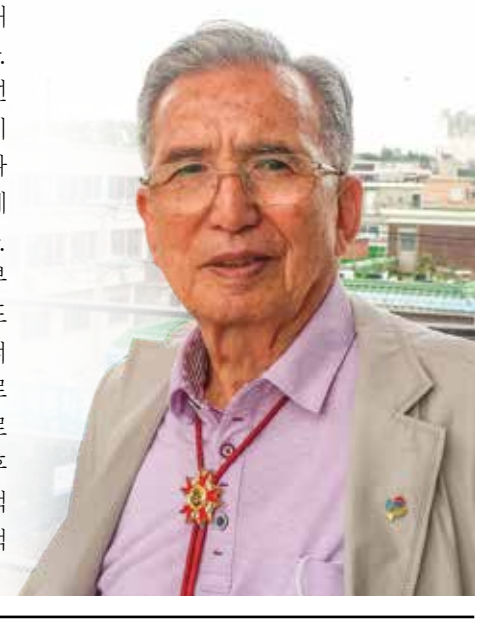
최종환 전 6 · 25 참전유공자회 안산시 지회장은 1948년 8 · 15 광복 후 부모님과 함께 남하한 후 국군의 전신인 특무대원으로 지원했다. 그 후 1950년 6 · 25 전쟁이 발발하던 때까지 1사단 11연대 정보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다 6월 25일 38선에서 북한군에 잡혀 정치범으로 분류돼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6~7명을 수용할 감방에 30명 이상이 함께 수용되어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배식을 안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미군이 급식소를 폭파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깨우더니 배식을 한다고 했다. 식판에 든 밥이며 국이 차가운 것을 보고 ‘밥에 약을 탔다’라고 판단을 해 감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소리쳤다.

수면제를 먹여 잠든 틈을 타 감방에 불을 지르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북한군은 그대로 밖에서 문을 잠근 후 불을 질렀다. 안에 있던 수감자들이 요동을 치자 최 전 회장은 “조용히 해라. 죽더라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죽자, 끝까지 투쟁하며 죽자.”고 외쳤다.

죽음을 각오한 탓이었을 까, 다른 감방에서 탈출한 수감자들이 넣어준 돌을 이용해 감방 문을 부수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틈에서 모두 한꺼번에 몰리면 그나마도 탈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줄을 세워 한 명씩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탈출을 해보니 앞 감방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돌을 들고 문을 부순 후 아이들과 여자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 모두가 탈출하고 잠시 후 감방이 무너져 내렸다. 탈출에 성공한 최 전 회장은 따르던 5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해주 수양산으로 도피를 했다. 산 속에서 이틀간 몸을 숨긴 후 UN군을 만난 후 피란행렬에서 인민군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루에 200여 명을 색출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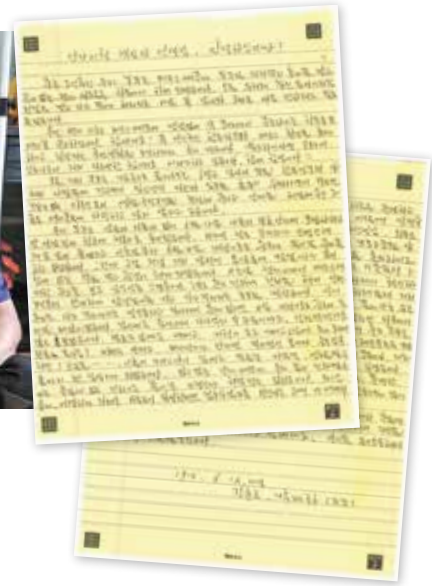
“젊은이들이 확실한 국가관을 가져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목숨을 다해 지킨 이 나라를 젊은이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노병의 눈가는 젖어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하여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오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록수 보건소(481-5938, 5898)나 단원 보건소(481-3468, 35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동포, 메르스대책본부에 감사편지 전달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는 6월 14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중국동포 부부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동포는 지난 3월 입국해서 자녀 결혼식으로 6월 4일 출국예정이었으나 남편이 몸살통 및 발열 등 증상이 있어 단원보건소로 문의, 객담 검사를 받은 후 5월 30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중국동포 부부는 "자가 격리 후 단원보건소와 외국인주민센터, 안산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일일이 논의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돼서 이른 시일 내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생활용품 및 쌀, 야채, 과일 등을 지원 받고 그 속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손길을 받아서 같은 동포로서 자랑스럽고 정말 고맙다"며 "중국에 돌아가서도 이 같은 도움을 손길을 잊지 않고 관심이 필요한 한국인을 많이 돕겠다."고 했다.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들 중국동포 부부가 출국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의심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내 2개 병원에 격리병동 10병상과 고대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구 산재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진료소를 마련하고, 격리자들의 편의를 위해 캠핑카를 임대했으며 생필품과 의료물품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자가 격리자 심리지원 연계운영

심리적 불안,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정신의학과 전문가와 전화상담 운영

안산시는 메르스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정신의학과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운영한다.

심리지원 전화상담은 자가 격리로 인한 일상생활의 단절로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을 돕는 것으로 상록수 · 단원보건소 의료인들이 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의뢰하게 된다.

시는 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미리 예방하고자 쌀, 생수 등 일상생활용품 및 비상응급 의약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요즈음 큰 일교차로 감기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와 기침예절, 충분한 수분공급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 4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평택시에 종량제봉투 2,000매 지원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다.

안산시는 지난 6월 15일 평택시 소상공인에게 전달해 달라며 종량제봉투 2,000매를 평택시에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지역 상권이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문종화 안산시 환경교통국장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안산시의 지원에 너무 감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사랑의 건강 도시락 배달

격리로 인한 소외감 해소와 건강 돌보기 병행 추진

안산시는 6월 16일부터 중동호흡기중후군인 메르스 자가 격리자들을 위해 사랑의 건강 도시락을 배달한다.

시는 자가 격리자 중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고른 영양이 포함된 1일 3식의 건강 도시락을 배달하여 자가 격리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격리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자가 격리자 중 도시락 배달 희망자를 파악했으며,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조리와 설거지 그리고 포장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들이 격리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아직 확진환자는 없는 상태로 6월 15일 11시 현재 자가격리자 33명, 병원 격리자 6명, 능동감시자는 31명이며, 의심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내 2개 병원에 격리병동 10병상과 고대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구 산재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에 진료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진료소를 마련하고, 격리자들의 편의를 위해 생필품과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481-2156)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숲의 도시 안산' 만들기에 박차

'나눔숲' 조성,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보고회' 개최

'나눔 숲' 조성 전

'나눔 숲' 조성 후

안산시는 '숲의 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하는 푸른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상록구 사동 1534-2번지 일원에 나눔숲을 조성했다.

늘푸른 아파트, 고향마을 아파트 사이 폭 20m, 길이 180m의 나대지는 이용률이 저조해 타 용도로의 활용이 꾸준히 제기되던 부지다. 노후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느티나무, 벚나무 등 4,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곳곳에 벤치를 설치해 녹지가 부족한 인근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소 등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다.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했다.

시는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복권수익금인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시의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도 도시 숲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30,000㎡), 상반기 쌈지공원 조성(9개소, 6,480㎡), 미니수목원 조성(27,342㎡), 생활환경숲 조성(15,000㎡), 스마트허브 생태휴식공간 조성(5개소, 3,170㎡)등을 추진해 도심 내 휴식공간 확충과 혹서기 도심 열섬효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6월 10일 세계적인 '숲의 도시 안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림 조성 · 관리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안산시 도시 숲 미래상은 '자연공존의 숲', '공동체의 숲', '치유의 숲', '걷고 싶은 시원한 숲', '연안 보물섬의 숲'으로 정하고, 단기(2020년), 중기(2025년), 장기(2030년)적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기존 도심지역에는 '안산시 진입구간에 상징 가로 숲', 'Y자형 생태하천 네트워크 연결 녹지', '치유 · 힐링의 숲', '마을 숲 경관 복원' 등의 핵심사업을 제안했다.

대부도지역에는 '갯벌 · 해안 경관의 숲', '섬 생활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관광체험이 공존하는 해안 생태숲 조성'을 목표로 해양힐링 종합리조트, 해안 경관 및 어촌 체험단지, 포도 문화마을, 갯벌 생태마을, 염전 에코뮤지움 조성 등 안산의 보물섬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도시 숲 면적(9㎡)을 크게 상회하는 15㎡를 조성함으로써 도시 온도 저감 효과, 인재양성 효과, 도시민 힐링 효과, 새와 곤충이 찾아는 숲 조성을 통해 개인과 지역의 자산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숲에 온 듯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15년 후 안산이 지금의 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 (☎ 031-481-2346, 2326)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Good Stay
한국관광공사지정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

대부도 숙박업소 우수숙박시설 '굿스테이(GoodStay)' 선정

대부도 숙박업소 가운데 최초, 질 높은 숙박서비스 제공 기대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우수 숙박시설 지정사업에 대부도 숙박업소 1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지정 우수 숙박시설은 안산시 전체 3개소가 상록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도 소재 숙박업소가 굿스테이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굿스테이(GOODSTAY)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통한 관광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우수 숙박시설 브랜드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시설 및 위생관리 · 건전성 · 고객서비스 · 소방안전관리부문 총 20여 개 항목)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신규 지정된 굿스테이 업소는 시설 및 위생관리,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향후 2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대부도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더욱 질 높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부도 우수 숙박시설 지정으로 다가오는 안산 M밸리록페스티벌 등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대부개발과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쌈밥집 삼수갑산

'삼수갑산' 신동옥 대표

"댕이골 전통음식거리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진 먹거리 촌이다."

댕이골 입구에 자리한 맛집 '삼수갑산' 신동옥 대표는 댕이골 전통음식거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맛집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댕이골에서 자리를 잡은 게 맛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신 대표는 댕이골을 '도심 속 고향 같은 마을'이라고 했다. 수원, 인천 등 주변 도시에서 온 손님들은 봄이면 식후에 벚꽃이 만발한 댕이골과 뒷산의 진달래 꽃길을 한 시간여 산책한 뒤 찻집이나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코스를 즐긴다고 한다.

신동옥 대표는 댕이골 공영주차장 앞에서 운영하던 '솥뚜껑김치오리삼겹'의 노하우를 살려 음식점을 이전 · 확장하면서 메뉴를 쌈밥으로 바꿨다.

2층과 3층을 합해 120평의 음식점에는 김치저장고 3평, 냉동고 2평, 야채저장고 5평에다 홀과 주방 사이에는 손님상으로 직행할 쌈채소를 위한 싱싱고가 자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이틀에 한 번 가락동시장에서 유기농야채를 구입한다. 하루 평균 약 200명이 다녀가는 손님들 덕분에 야채만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둘 정도로 '삼수갑산'의 쌈채소 소비량은 엄청나다. 점심에는 인근 지역의 주부와 직장인 등이 다녀가고, 저녁에는 학교 임직원과 연구소, 공단 등 사무실에서 단체로 회식을 하기 위해 '삼수갑산'을 찾는다고 한다.

웰빙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 유기농 야채와 직접 담근 된장을 주메뉴로 하는 쌈밥은 경기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단골을 확보하며 순항중이다. 쌈밥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적치커리, 적겨자, 적근대, 비트, 케일, 로즈, 당귀, 비타민, 신선초 등 20종의 쌈채소를 한 잎씩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이 모자란다. 쌈채소와 반찬, 돌솥밥을 기본으로 오리 · 소 · 돼지고기 등 쌈 안에 넣을 육류를 고르는 두 번째 즐거움도 있다.

맛집 운영에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노력'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게 되면 손님은 금방 알아챕니다.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음식과 서비스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직원들과도 한 배를 탄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즐겁게 일하는 직원들 덕분에 손님들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는 거겠죠. 돌고 도는 겁니다."

신 대표는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를 대비해 더덕, 두릅, 명이나물, 고추 등 절임 반찬을 대체 식품으로 만들어둔다고 한다. 쌈채소가 비싸다고 손을 오그리지 않고 손님들의 젓가락이 품격 있는 밑반찬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짝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양연희 씨(40세, 사2동)는 "댕이골에는 맛집이 많아 언제, 누구와 오더라도 잘 먹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양한 메뉴 중에서 무얼 먹을까 하고 맛집을 고르는 재미도 있구요. 6년 동안 댕이골을 이용했는데 요즘은 깔끔한 맛 덕분에 쌈밥집에 자주 오게 된다."고 했다.

"음식점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신 대표의 자부심과 맛집 노하우가 댕이골의 버팀목이 되어 댕이골 전통음식거리가 안산 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본다.

• 문의 : 삼수갑산 (☎031-418-1800)
• 주소 : 상록구 댕이길 82 (사동 1348)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얼굴 있는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본오동에 안산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매장에서 채소와 꿀, 화훼를 판매하는 이옥자 씨(좌), 매장에 진열된 농산물

"미나리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밝은 표정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이옥자 씨(60세, 초지동)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에 들른다. 그녀가 매장에서 하는 일은 상품의 진열 상태를 살피거나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루에 10번도 더 와요. 안정적이 판로가 생기니 수입도 늘고, 매장에 나와서 손님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좋아요."라고 말한다.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안산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증가하는 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이곳에는 로컬 푸드와 협동조합의 이해, 출하요령, 재고관리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122명의 농업인들이 오이, 고추, 상추 등 채소류와 딸기, 참외, 매실 등 과실류, 쌀, 잡곡류 등 총 100여 품목의 농축산물을 판매한다.

상추 솎은 것을 바구니에 넣은 시민은 "집이 이 근처라 자주 온다. 때를 놓치면 먹기 힘든 것들을 싱싱하고 싼 값에 먹을 수 있어 정말 좋다. 상추 솎은 것 한 봉지에 1천 원이면 얼마나 싼 거냐! 게다가 양도 푸짐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금미 안산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팀장은 "생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파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극대화되어 단지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닌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당귀를 판매하는 생산자가 소비자로부터 라벨에 쓰인 전화번호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받고 무척 즐거워하셨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허물없이 소통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소량 생산을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제공해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농산품품질관리위원회와 MOU를 맺어 샘플조사와 속성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하루는 오전 7시에 시작된다. 생산자들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포장하고 가격을 결정해 라벨을 붙인 후 매장에 진열을 한다. 조금 이른 시간에 가면 생산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전 9시까지 진열을 마친 후에는 각자 CCTV를 통해 재고를 파악해 빠진 물건을 채워놓는다.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직매장에서는 안산시 시니어클럽과 사회적 기업, 장애우 단체에서 만든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 문의 : 안산반월농협 로컬푸드직매장 (☎031-437-5237)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1190-1(본오동)
본오동 각골사거리 고차차도 옆 / 해안로 매송 I/C 진입 도로 초입

김은미 명예기자〈iami34@hanmail.net〉

희희낙락(喜嬉樂樂) 同人展, 세 번째 이야기 - 바람을 이겨내다!

20~30년 이상 활동한 중견 작가들의 작품 전시
국내 회화에서 생소한 '옻칠화'도 만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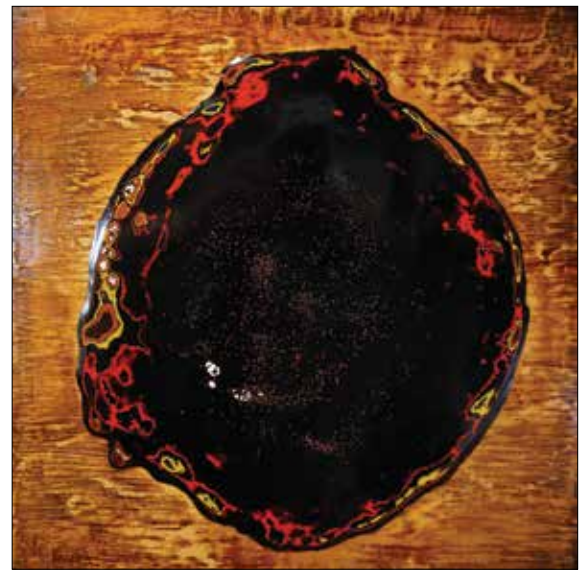
김이구 '희희낙락-우주풍차'

오는 28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희희낙락 동인전이 열린다. 20~30년 이상 활동한 중견 전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희희낙락 동인은 안산에 기반을 둔 작가들과 기타 지역 작가들의 교류, 연구 단체이다. 순수미술을 토대로 한 작가들을 주축으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전업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연 1회 정기 기획전을 가지며, 수시로 다른 전시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희희낙락은 창작의 미학과 철학으로서의 목표성 상징이 화두이다. 인간이 희망하는 삶의 궁극으로 우리 모두가 밝고, 가볍게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2015년 세 번째 전시는 침체된 작금의 사회현상에서 하루 빨리 회복하여 다시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하자는 뜻으로 '셋, 바람을 이겨내다'로 정해 동시대를 사는 작가로서의 작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시는 각각 '하나, 모이고 소리를 내다', '둘, 꿈틀거리다'로 믿음갤러리(고잔동)에서 열렸다. 고은정, 김미란, 김이구, 성상원(브라질, 상파울루), 이동수, 이동윤, 이민경, 이수정, 임한희, 정인완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이구 작가는 작가들의 국제네트워크인 컬러브레인의 설립자이며, 순수미술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문화활동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이다. 건축과 순수미술, 패션과 순수미술, 병원과 미술, 레스토랑과 순수미술 등 생활 곳곳에 순수미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순수미술 작가로서의 작업은 유니크하고 개념적인 쉽고 유머러스한 페인팅을 주로 하는데, 굳센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현대사회에 화두같은 메시지들을 던져 사유를 유발한다. 복잡하고 권위적인 미술사조에 다분히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 브라질 쌍파울루, 영국 런던 등에서 현지 언론과 방송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수정 '달을 품다'

성상원 작가의 작품은 유니크하며, 키치적이다. 10대 후반에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쌍파울루에 거주하며 현지의 미술학교와 다시 역유학을 해 홍익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돌아갔다. 세계적 명성의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인 상파울루는 현대미술이 일찌감치 발전해 있는 현대미술의 선진도시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유니크한 작업은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사물들을 재조합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의 작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유니크와 키치'이다. 2000년 후반까지 상파울루의 유명갤러리 토마스콘의 전속작가로 활동하면서, 광고계에도 발을 넓혀 유명 항공사의 CF 등을 제작한 바 있으며, 국내엔 미술교과서에도 작품이 소개된 바 있다. 현재는 상파울루에 아트갤러리 누뱅(NuVEM)을 직접 운영하고, 남미 최대의 미술시장인 S.P. ARTE에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상원

이수정 작가는 옻칠화 작가이다. 옻칠화는 지금까지 국내 회화에서는 생소한 분야이다. 천연옻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체와 광택이 진화된다. 옻칠작업은 수많은 공정과 까다로운 습도, 온도, 강도 높은 작업 등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가능하다. 해서 천연옻으로 만든 작품은 가격이 꽤 높은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옻칠의 매력에 빠져 드는 매니아 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천연옻칠이 부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작품들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완성된 작품들을 보면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빛의 감탄이 나오게 된다.

• 문의 : 단원미술관 (☎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다리피', '조구나리'를 아시나요?

안산문화원, 올해 8곳에 지명 유래비 설치해

지난해 월피동에 세운 '다리피(월입피)' 지명 유래비

지난해 선부동에 세운 '조구나리' 지명 유래비

사람에게 인명이 있듯 땅에도 지명이 있다. 지명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진 것도 있고,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 역사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예전 이름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산문화원은 지난 2005년 '안산의 얼 찾기'사업으로 초지동의 둔배미, 선부동의 뗏골, 대부북동의 방아머리, 와동의 동작리, 사사동의 양짓말, 부곡동의 점섬, 성곡동의 잿머리, 안산동의 안산, 사동의 감자골, 본오동의 샘골, 사동의 사리포구, 부곡동의 개멀, 고잔동의 마실, 월피동의 부루지, 성포동의 성머리 등 16곳에 지명 유래비를 세웠다. 유래비는 가로 75cm, 세로 110cm, 두께 30cm의 세석(맷돌석)으로 제작해 높이 30cm의 좌대 위에 설치했으며 전면에는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이 음각으로 새겨져있다. 작년에는 기존 지명 유래비의 찌든 때를 제거하고, 글자색을 다시 넣는 등 보수 작업을 하였고, 월피동의 다리피, 고잔동의 도리섬, 선부동의 석수골, 이동의 조구나리, 본오동의 각골, 대부동의 탄도, 신길동의 능길 등 7곳에 지명 유래비를 설치했다.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대학동의 석바탱이, 원시동의 시꿀, 와동의 왜두둘기, 고잔동의 붉은섬, 건건동의 창말, 본오동의 막고지, 수암동의 비석거리, 일동의 성호장 터 등 8곳이다. 지난해 세운 월피동의 '다리피(월입피)'는 조선시대에 안산천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오던 시기에 만조가 되면 개천둑이 초승달만큼 남아 달이 언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달월(月), 들입(入), 언덕피(陂)를 써 월입피라고 불렸다. 조선시대에는 월입피 주막이 유명했고, 신도시 개발 때 지석묘 6기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성포동의 '조구나리'는 조선시대에 광주유수가 이 지역이 조세(租稅)를 싣고 인천과 한강을 경유하여 조정에 바쳤다 하여 조공(租貢)나루라 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조구나리'로 변음되었다. 한편에서는 조기배가 많이 드나들던 포구라 하여 '조기나루'라는 설도 있다.

안산문화원 이현우 사무국장은 "올해 추가로 8곳에 지명 유래비를 세우게 되었다. 현재 안산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4%인 3천여 명 정도인데 대부분 고령이다. 생존하고 있는 원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규모가 큰 마을을 위주로 50여 개를 더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마을 숲' 사람을 품다 8

'용하공원'과 '용하운동장' 이야기

"당신은 흰수염 고래의 숨구멍을 보았나요?"

자동차를 타고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국적인 교회가 보인다. 교회 첨탑에 이끌려 용하공원(상록구 사동 1535-1)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는 애견인의 경쾌한 발걸음을 따라 공원을 둘러본다.

용하공원은 2003년 조성(18,262㎡)됐다. 중심광장과 잔디광장을 지나다보면 게이트볼장과 농구대 등의 체력 단련 시설이 보인다. 안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건강체조교실이 매주 화, 목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열린다고 알려주는 현수막도 걸려 있다.

본오동에서 황톳길을 따라 산책 나온 어르신은 "자녀를 따라 안산에 온 지 3년 남짓 되었다. 안산은 오래된 나무도 많고 공원이 많아 살기 좋다."며 "노적봉, 호수공원, 안산식물원에 가봤는데 봄 경치가 끝내준다."고 했다.

인조잔디가 깔린 체육시설이 보여 가까이 가보니 풋살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4천 원, 주말은 6천 원이다.

용하공원과 함께 2003년에 조성(10,143㎡)된 용하운동장(상록구 사동 1535-2)은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풋살은 정규 축구를 초심자들에게 맞게 축소한 미니 축구로, 영문으로는 풋살(Futsal)로 표기하는데, 에스파냐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축구'를 뜻하는 'futbol'과 프랑스어로 '실내'를 뜻하는 'salon'을 합성한 용어이다. 5인제를 원칙으로 하며, 1987년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제정됐다. 사이드라인은 60~80m, 골라인은 30~40m이다. 팀 인원은 5인제 외에 정규 축구의 11명보다 적게 임의로 축소해 구성할 수 있다.

용하운동장 내 풋살장은 매치프로그램 지원, 경기영상 라이브 생방송 및 녹화 다운로드, 풋살화 · 풋살공 등을 무료 대여하는 풋살스포츠 안산전용구장이다. 유소년 축구클럽 창단 등 주말에는 이용자가 많아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용하운동장은 체육시설 외에도 문화적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2007년 문화관광부 ·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두레나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 후원을 받아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 상록구청, 예술가, 지역 주민이 함께 '도심의 오아시스'를 꿈꾸며 재조성했다.

고래를 닮은 사할린의 땅모양을 한 운동장 바닥패턴의 디자인은 대한민국과 사할린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푸른 고래의 상징적 이미지를 녹여냈다. 사할린아리랑이 새겨진 배수구에서 역사의 흔적도 읽을 수 있다.

하늘조각을 담은 둥근 형태의 정자 조형물은 용하운동장을 극동의 푸른 별로 상징하며, 우주와 땅, 바다, 생명(동식물)을 담아 지역의 화합을 추구한다. "당신은 흰수염 고래의 숨구멍을 보았나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받침돌에는 추억과 회상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움직이는 퍼즐 벽화 '바람이 머무는 기둥' 그림펜스 조형물은 사할린 동포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이다.

휠체어에서 내리는 어르신을 부축하던 요양보호사 나민자 씨(61세, 부곡동)는 "고향마을에는 연로한 사할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어르신들에게 햇볕도 쬐여주고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무릎에 힘을 키워주기 위해 이곳으로 나옵니다. 답답한 아파트에서 나와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용하공원과 용하운동장이 찌는 사막과 같은 도시 안에서 한숨을 돌리고 잠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용하공원에서 용하운동장으로 가는 길, 풋살장과 교회 첨탑이 보인다.

용하운동장 정자조형물

성안초등학교 옆 공원산책로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와동체육공원'

와동 주민센터에서 서쪽으로 약 500m 내려가면 화정천 못 미쳐 사거리가 나온다. 사거리 남서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와동체육공원이 있다. 공원은 1999년 16억2,600만 원을 들여 56,895.9㎡의 부지에 조성됐다. 공원에는 광장과 다목적 운동장이 있어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실내농구장, 족구장과 어깨유연성 운동기와 스트레칭롤러 등 체력단련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차장, 산책로와 파고라, 정자 등 다양한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정서를 순화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다.

주택가 쪽으로 여러 곳에 출입구가 나있는 공원은 꽃나무를 비롯해 약 2만2천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에 특히 아름답다. 기자가 찾아 간 6월의 공원은 벚꽃 떨어진 자리에 까만 버찌들이 들어서 있었다. 벚나무 가지마다 빽빽이 열린 동그란 열매들은 4월에 눈처럼 흩날리던 꽃잎들의 화신인가. 암벽새 비둘기들은 마치 공원의 주인이라도 되는 냥 지난해 새롭게 조성된 물놀이장을 가로지르며 열매를 쪼아 먹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낸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한 곳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집 앞에 큰 공원이 있어서 참 좋아요." 경기도 부천에서 이곳 와동체육공원 근처로 이사 온 우진숙 씨(42세)는 주택가에 이정도 규모의 녹지공간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했다. "인구밀집지역에 이런 공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만족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 다칠까봐 저도 이렇게 줍고 있고요. 공원 관리인 아저씨 말로는 오늘도 깨진 병 열 대 여섯 개 치웠다고 하네요."

공원 한쪽에는 안산 출신 3 · 1 독립운동가 홍순칠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1919년 3월 30일 태극기 3천여 장을 제작해 수암동 비석거리 만세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 옥고 끝에 고문 후유증으로 13년 동안 병고를 치르다 돌아가신 故 홍순칠 선생의 유업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에서 선생의 생가 근처인 와동공원에 공적비를 세워 기념한다고 쓰여 있다.

리기다소나무, 적송이 공원 외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와동체육공원. 지역주민들의 정원이 되어주고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2015안산M밸리록페스티벌’

7월 24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열려

안산시, 시민과 함께 축제 준비 한창

어제의 전설, 오늘의 최정상 뮤지션, 그리고 내일의 히어로들이 펼치는 록의 향연 ‘2015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 2년 만에 돌아온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열리지 못했던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 노엘 갤로거, 케미칼 브라더스, 휴 파이터스 등을 헤드라이너로 7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한여름 뜨거운 열기 속 시원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열린다.

안산M록페는 CJ E&M과 안산시가 주최하는 실외 록 페스티벌이다. 2009년 공연기획사 9 ENT(구 옐로나인)의 기획, 주관으로 경기도 이천 지산리조트에서 처음 열렸는데 안산시가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록 페스티벌 전용 부지를 마련, 자본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CJ E&M과 2013년부터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화려한 헤드라이너 외에 장기하와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정준영밴드, 이디오테잎 등 국내외 아티스트 60여 개 팀이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아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서울 여의도 공원 면적의 4배인 98만 ㎡로 갯벌과 수변 공간, 도예, 승마, 염전, 와이너리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펜션 · 호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인프라를 갖췄다. 2박 3일 동안 팬들은 2015년에 방점을 찍을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한편, 페스티벌을 한 달여 앞둔 지난 6월 1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15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CJ E&M(주) 신상화 음악사업 본부장의 공연기획 추진상황 프레젠테이션과 안산시 관계자의 행정지원 보고 등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안산M록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반적인 축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안산시장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축제 · 그린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축제가 안산시민과 결합한 대표축제로서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기반 한 업체 활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페스티벌은 언론 노출에 따른 안산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생산 유발 등 금액 환산 총 567억 원에 이르는 파급효과가 있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 (☎031-481-2721)
- 홈페이지 : valleyrockfestival.mnet.com
- 예매 : 인터파크 (☎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1일 권 15만원 / 2일 권 22만원 / 3일 권 26만원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 대부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고(古)선박, 그 모습을 드러내다

고려시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고선박 발굴조사 현장

지난해 11월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인근해역에서 낙지잡이를 하던 어민이 고선박 일부를 발견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6월 4일 12시 개수제(開水祭)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신고 당시에는 배 앞머리와 뒷머리 일부만 노출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선박의 훼손방지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내리고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침몰 지역 이름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므로 2006년 대부도에서 고려선박이 처음 발견된 바 있어 이번 것을 대부도2호선으로 명칭 하였다. 선박의 규모는 약 9.2m. 최대폭은 2.6m 가량으로 기존 발굴된 고려 선박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선박의 구조와 선체 내부에서 수습된 도자기 파편들로 미루어 고려시대 선박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먼 바다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의 이동을 짐작하게 해준다.

대부도 2호선 발굴현장은 노경정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연구진들 7~8명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사잇부분(조간대)에 선박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들어오는 물과 갯벌들을 퍼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작은 유실물들이라도 찾아내어 담고, 사진 찍고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밀물이 시작되기 전에 형태를 살피고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면서 앞부분(선두제)과 끝부분(선미제)의 모습이 드러났다. 특히 선수 쪽에 호롱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닷줄을 풀고 감는 장치) 추정되는 구조물이 닷줄과 엉켜져있는 온전한 상태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자리하고 있었다.

육지가 아닌 해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연구진들은 시간과 날씨에 초점을 두고 발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계속 반복되는 발굴작업에도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었다.

수중 발굴팀의 노경정 학예 연구사는 “발굴이 끝나는 시점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 한 달(6월 3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으며 발굴이 끝나게 되면 목포해양연구소로 선박을 이동하여 보존처리를 한 다음 문화재 평가에 들어간다. 선박에 대한 평가는 쉽지가 않다. 작은 선박이기에 유물이 많지 않고 또한 파편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평가보다는 선박의 형태 보전이 잘되어 있어서 학술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선박은 대부도 2호선을 포함 모두 14척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발견된 고선박들이 모두 고려시대의 것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안, 진도, 신안 등지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고려시대에 중국과 일본 등 교역활동이 더욱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문화재 발굴로 얻은 소중한 우리의 중요한 자산을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통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7월 부터 더 새로워진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준비서류 신분증, 도장, 전월세계약서 및 소득·재산관련 서류

※ 동주민센터 상담 후 추가 요구 서류 있음.

※ 기존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전화

안산시콜센터 1666-1234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혈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0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 수급자 분들의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위기일 땐 119, 힘겨울 땐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0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 2015년 6월 1일부터
02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03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04 급여실시	결정된 급여 지급
	지급 시기 2015년 7월 20일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9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부 고용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기준	기준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 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시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1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 · 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6·9·12월)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일자리 찾으세요?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희망 일 드림' 창구, 일자리 상담 서비스 본격 시작

고잔1동 주민 임모 씨(49세)는 중국요리 조리사로 청년기를 보냈지만 최근 허리 디스크가 생겨 일을 못하고 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2일 문을 연 주민센터 취업상담 창구 '희망 일 드림'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임 씨는 아직 미혼이다. 기술을 살려 중국음식점을 하나 내고 싶지만 "수중에 가진 게 없어 꿈도 못 꾼다."고 말한다. 그런 임 씨에게 꿈은 꾸라고 말해주고 싶다. 꿈을 꾸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창업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희망 일 드림'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 일 드림' 창구는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안산의 25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정보도 얻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상담해 '희망의 일을 받아'보길 권한다.

일자리 알선 관련 전문 컨설턴트인 직업상담사들이 동네 구석 구석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희망을 주고자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일자리 정보 등을 얻지 못해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시켜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희망 일 드림' 창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건강도 이웃도 우리가 지킨다.'

탁구를 통해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을 지켜나가는

'푸르지오 6차 탁구동호회'

탁구를 통해 건강을 지킴은 물론 이웃과의 소통과 친목을 다지고 나아가서 실력을 키워 대회에도 참가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동아리활동을 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사3동 대우 푸르지오 6차 아파트에는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이 어색하기도 하고 운동이라 생각했는지 참여가 미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방과 후, 퇴근 후가 되면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밤 11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탁구 동호회를 만들어 친목도 다지고 건강은 보너스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고 한다.

탁구동호회는 현재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고 2013년 2월에 결성해 올해 2주년을 맞게 되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탁구를 사랑하는 마음,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 모임의 본질을 깨뜨리지 않는 약속 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한다. 예를 들면 동호회 회원 중에는 초등학생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 실전 연습 때에 파트너의 나이차가 크게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운동을 하고나서 음주가 곁들인 뒷풀이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결성 초기에는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갖가지 크고 작은 몸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동호회가 잘 유지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원칙을 정하고 실천을 통해 점차 회원들의 건강에 파란불이 켜지는 것을 본 순간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고 그런 회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동호회는 안산시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해 대회에 참석했고 두 번의 출전임에도 상을 타고 승격을 하는 회원들이 여럿 생기며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회장 유광형 씨는"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아래윗집도 모르고 삭막합니다. 동호회를 통해서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르지오 6차의 경우는 탁구를 비롯해 축구, 산악회 등 동호회가 여럿 있어 얼마나 감사한줄 모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외된 이웃이 생기지 않는 우리 마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했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칭찬합니다

가수 **서가인** 씨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래 재능기부

'내사랑 대부도' 자작곡, 대부도 알리기 홍보대사 자처해

"힘들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흥겨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즐거워져요. 아프신 분들의 병세가 좋아지고, 노래 가사 외우는 것을 보면 무척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맛에 봉사를 계속 하게 되나봅니다."

봉사의 매력이 뭐냐는 질문에 서가인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병원을 다니면서 재능기부를 오래도록 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으로 다가갈 때 기쁘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노인 환자들을 생각하면 결코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서가인 씨는 2005년 정규 앨범을 낸 가수이다. 2집까지 앨범이 발표되었고 3집은 녹음을 마친 상태이다. 이종환 쉘브르 출신 가수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다 2005년 본격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서가인 씨의 재능기부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양원에 공연 갈 건데 시간되면 같이 가자'던 선배의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노래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다. 요양원에서 환자들과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다. 치매로 돌아가시기까지 안산 병원에 계셨었기에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난듯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기쁨으로 노래를 한다고 한다.

"봉사라는 게 꾸준히 이루어져야지 1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어느 공연장에서는 정성을 다해 노래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찮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늘 가면 또 안 올거라면서 아예 정을 안주려 냉냉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계속 노래를 하러 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라며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선배의 권유로 시작한 봉사는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봉사자상도 받고, 안산 각종 행사에 게스트로 공연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서가인 씨는 대부도 알리기 홍보대사를 자처할 만큼 안산을 사랑하는 안산시민이다. 대부도 낙조를 처음 보았을 때 혼자보기에 아까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도 곳곳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2007년도에 안산으로 이사 오면서 안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서가인 씨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내사랑 대부도'란 자작곡을 만들어 대부도 알리기 홍보에 나섰다.

서가인 씨는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신다. 돌아가셨더라도 늘 마음속에 살아계신 거처럼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따뜻한 위로가 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hanmarus@naver.com)

극단 오아시스, 꿈의 무대에서 삶을 살다

극단 '오아시스' 단원들

극단 오아시스가 '2015ASAC공연예술제'에 참가해 연극 '누가 살던 방'을 공연한다.

2013년 1월부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성인연극' 단기강좌로 시작한 연극교실은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정규강좌로 편성되었고, 극단 '오아시스'를 창단해 5월에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으로 첫 공연을 했다. 이후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산부인과', '이럴 수가 있나요', '아름다운 사인', '도덕적 도둑', '일등급 인간'을 공연했다.

극단 오아시스는 주부, 회사원,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직업과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배우로서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공연 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창단했다.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오아시스는 연극을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접목시키고 융합시켜 연극과 삶에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

연극 '누가 살던 방'은 도시 변두리 반지하 방이라는 공간을 설정해 삶의 매순간 울고 웃는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녹록치 않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방. 그 방에서 보여주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따뜻한 위로를 준다.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 연습실을 찾았다.

가난하고 나이든 트랜스젠더 영희가 혼자 세 들어 사는 방에 크로스드레서(여장남자)인 옛 애인 세윤이 찾아오는 장면이다.

그들에게 있어 그 방은 아름다웠던 한때 자신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이고, 슬픔의 장소이다.

"내가 나인 게 죄라면…. 다시 태어나야 하나?"라는 영희의 대사가 가슴을 울린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마지막 탱고는 섹시함과 더불어 슬프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연출을 맡은 정도영 씨는 배우들에게 무대의 동선과 감정표현, 포즈, 대사와 감탄사 등에 대해 디테일한 표현을 주문하고, 잠시 쉬는 동안 두 배우는 극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감정을 끌어내주기도 한다.

극단대표 김미애 씨는 "연극을 하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연기는 물론 소품, 음향 등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종합예술을 통해 내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즐거움이 직장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연극'은 현재 제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라며 웃는다.

'누가 살던 방'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공연하며, 관람료는 전석 15,000원(청소년 5,000원, 예술인/10인 이상 단체 10,000)이다.

• 극단 오아시스 : http://cafe.daum.net/TheatreCo.OASIS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일상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노는 단 하루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이상한 마을에 가다

아무 제약 없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마을축제에 다녀왔다.

안산문화재단의 상주예술단체 몸꼴이 준비한 '이상한 마을'에 들어서니 사용설명서부터 나눠준다. 아무도 뭘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 이상한 마을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분무기 물세례부터 받았다. 빨간 땡땡이 무늬 두건을 쓴 스텝들은 스파이와 접촉하는 것처럼 귓속말로 '마을사람이세요?'라고 묻는다. 서둘러 나눠준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니 마을에 있는 낯선 사람 3명과 인사해야 마을사람으로 인증 받고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몸꼴의 이상한마을'은 일상의 규칙과 제약이 존재하는 시공간을 떠나,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해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였다. 축제 공간에 있던 인디언 텐트와 여러 개의 피크닉 돗자리, 꽃 파는 수레 등은 이 축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가만히 지켜보니 몸꼴의 축제에선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증여의 규칙이 통용되고 있었다. 인디언 텐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를 한 후, 완성품을 근처에 있던 스텝들에게 가져다주면,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거나, 타로카드 점을 봐주는 식이었다. 먹거리 판매도 돈이 아닌 꽃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까만수레 아가씨에게 꽃 한송이를 사서 가져다주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종이팩과 쪽지를 선물로 받았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이상한 마을을 뛰어다니며 아이들은 분무기로 물장난을 치거나, 폐타이어로 만든 색깔 바퀴로 창의적인 놀이를 만들어냈다. 때론 무당벌레 두건 스텝들이 중간 중간 나타나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곤 했다. 폐타이어는 팽이, 징검다리, 뜀틀 등 수십 가지 장난감으로 변형되어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분무기 무기를 장착하고, 타이어 정글 속을 탐험하랴 시간가는 줄 몰랐다. 마을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했다. 보물꾸러미 안에 있던 분필로 이상한 마을바닥에 온갖 낙서도 실컷 해본다. 규칙을 어겨보니 재미도 더 커진다.

이상한 마을 '깨알극장'에서는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각각 광대 · 자유참가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나홀로 서커스'와 '스텝바이스텝' 등을 비롯해 인기 만점이었던 축제공연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저글링, 요요, 불쇼 등의 서커스를 코믹하게 풀어낸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매년 몸꼴의 마을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윤미영 씨(사2동)는 "아이들이 활동적인데, 이곳에 오면 아이들이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정말 좋다."며, "스텝들도 아이 마음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주니까 어른들도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산해양중 학생들이 해냈어요!

해양중학교 2학년 박선우, 이서영, 조성경, 육성수, 염승민, 권혁진, 강현준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서 3위 수상의 쾌거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결승전이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낙스빌 테네시 주립대학교에서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전 세계 창의력 영재 1,468개 팀 8천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해양중학교 학생들이 한국 최초로 D과제에서 3등상인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안산해양중 학생들이 참가한 도전과제는 다섯 가지(STEAM) 부문 중 네 번째 'D분야 Improv Game'이다. 해마다 랜덤으로 주어지는 네 가지 요소를 즉석에서 조합하여 즉흥 공연으로 표현하는 융합 공연형 과제를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바로 D분야이다. 올해 출제된 문제도 한 팀이 즉흥 게임요소, 거리공연 요소, 상황, 장소 등 네 가지 요소들을 즉석에서 3회에 걸쳐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막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들은 공연에 앞서 팀별로 추첨한 네 가지 요소가 발표되면 1분의 준비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2분 안에 공연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세 번을 공연하면 각 요소의 연관성과 스토리, 표현력, 협동력 등을 평가받게 되는데, 안산해양중학교 학생들은 도전과제에서 300점 만점 중 298.37점으로 2위를 하고, 즉석과제에서는 100점 중 84.67점을 받아 각 지역별 예선을 통해 뽑힌 전 세계 중등부 89팀 가운데 3등상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팀의 리더를 맡은 박선우 학생은 "팀원 간에 끊임없는 토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훌륭히 팀워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과제 내 요소를 분담하여 연구했고, 긴 시간 열심히 연습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산해양중학교 학생들은 지난 2월 광명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거쳐 5월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열린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결승전에 출전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며 세계 타이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독/자/투/고

아이들과 함께 한 오색테마길

지난 주말, 오랜만에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안산의 명품 오색테마길을 걷기로 하고 나섰다.

갈대습지공원 둘레에 갈대습지길, 본오뜰을 관통하는 들판길, 그리고 기존의 황토십리길, 안산천길, 수변공원까지 연결된 오색테마길.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는 마음, 시작부터 상큼하다.

갈대습지는 여름철엔 푸르른 녹음으로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가을엔 갈색의 군락으로 낭만과 시심(詩心)을 떠오르게 한다. 정말 우리 안산의 오색테마길 만큼 아름다운 올레길이 얼마나 더 있을까. 억새군락이며 들판길이며 황토십리길까지.

"아빠, 이리로 오세요!"

"이 갈대좀 봐요. 밑에 뭐가 사나봐요. 꼬물거려요!"

황새의 가느다란 다리를 닮은 귀여운 아이들이 갈대밭 밑동을 보며 소리친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자연공부요, 지구환경 보호운동의 초심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다.

지난 봄, 아이들더러 하고 싶은 일을 말해 보라 했더니 아빠와 같이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했기에 나는 사실 그동안 언제 어디로 갈까 고민했었다. 그것을 이제야 오색테마길로 코스를 잡아 나선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나 혼자서 다닌 등산이었기에 아이들의 요청을 듣고는 아차 싶었다. 진작 데리고 다닐 걸…

한여름 오색테마길은 유유창천 파란 하늘길 아래 참 아름답고 순수했다. 안산의 하늘이 내린 자리에는 푸르른 녹음과 여유와 평화가 수놓아져 있었다. 오색테마길은 15.5km 정도 구간이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을 다 걷기에는 무리지만 나는 주말마다 한 코스 한 코스 데리고 나설 계획이다.

작년이었던가. 갈대습지와 쓰레기 매립장 구간에 산책로가 조성돼 쉼터와 생활체육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됐고, 추가적으로 꽃길, 화단도 만들어졌다. 덕분에 안산 오색테마길은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명소가 된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얼굴을 내미는 들풀과 들꽃들, 야생의 은근한 매력이 손끝과 발끝에 묻어나는 듯 우리가 걷는 길은 곳곳에 행복이 하나 둘 피어올랐다. 길섶의 들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닮았다고 느꼈다. 마침 큰놈이 맞장구를 친다.

"아빠, 우리 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들풀 교실이에요. 이 들풀들처럼요."

"그래, 들풀은 작고 여리지만, 각각 제 빛깔과 향을 지녔단다. 너희들처럼 말이야.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고, 장미와 같이 가시는 없지만, 여기저기 모여 자라잖니? 그렇게 여럿이 어울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걸은 오색테마길 힐링은 내가 안산에서 살면서 맛 볼 수 있는 큰 기쁨이리라! 점점 메말라 가는 세태에 아이들과 함께 한 테마길 걷기 체험은 귀중한 비타민이 되었다.

유민규 (상록구 초당로 58)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시의회, 제221회 1차 정례회

6월 22일부터 25일간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21회 1차 정례회를 6월 22일부터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안산시의회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21회 1차 정례회를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25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의사일정과 대상 안건 등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 7명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4건, 지난 회기 보류안건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준호 의원과 이상숙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대표발의 나정숙) 과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윤석진) 등 8건을 상정했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김동수) 등 4건, 공통 소관으로 3건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지난회기에 보류되었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금번 회기에 재차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유리알 같은 아이들 보듬는 정민구 씨… 안산시민 상 수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돼주세요"

공동생활가정 '가온바람' 정민구 목사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잘 갔다 왔어?" "이거 먹으실래요? 남았어요.", "새우깡 한 봉지도 다 못 먹고 남겨왔어? 친구들한테 좀 주지 그랬어." 초등 3학년생 현빈(가명)을 맞이하는 정민구 씨(57세) 부부의 모습은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로봇 · 바둑 교실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손부터 씻으라고 말하고 찐 감자를 내오는 부인은 영락없는 엄마다.

현빈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둘이 살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정민구 씨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가온바람'에 처음 왔을 때에는 유독 먹을 것에 집착이 심한 아이였다. 체구도 제 또래에 비해 작고 깡말랐었다. 지금은 정씨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과 균형 잡힌 식사로 체중도 늘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고 있다.

가온바람에는 현빈이와 같은 아이들이 6명이 더 있다. 제일 어린 초등 3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남자아이들 7명이 정민구씨 부부와 부부의 중학교 2학년 막내아들과 함께 열 식구 대가족을 이뤄 생활한다. 아이들은 대부분 ADHD(주의력결핍장애), 불안, 분노 · 충동조절 어려움 등 인지적, 발달적 장애를 안고 있지만 정씨 부부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민구 씨는 공동생활가정 가온바람의 생활지도사로서 아이들의 생활과 정서안정, 재활과 교육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놀라운 성장과 발달, 향상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게 정민구 씨의 바람이다. 지난 6월 18일 이러한 공로로 안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단원구 초지동 새희망교회 목사이기도 한 정민구 씨는 수상의 공로를 주위 분들에게로 돌렸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으니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거절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상을 받았지만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경쟁사회에서 낙오한 어른들의 폐해를 가장 약한 아이들이 받습니다.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성인에게 행하는 투자의 12배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가 성장기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물게 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덕으로 이 일을 해나갑니다. 특히 안산시와 경기도 그룹 홈 연합회는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주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담긴, 사1동 마을계획 시즌1

300인 주민원탁회의 통해 마을계획 수립

올해 사1동에서는 주민의 손으로 장기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1동 마을계획 만들기'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1동 주민센터는 동 전체를 6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매년 한 지역씩 6년 동안 전체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마을계획을 하게 되는 지역은 사1동 대동서적 인근 주택주거지역부터 만남노래방 주거지역까지 해당된다.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동네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오는 6월 27일에는 감골시민홀에서 300인 주민원탁회의도 열린다.

사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감골주민회가 참여한 마을계획 기획단 회의가 지난 3월 처음 열린 후, 사진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의 사진을 직접 찍고 전시하는 마을사진전도 열렸다. 특별히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던 마을계획실천단 워크숍은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마을에 머물렀던 자세를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공간을 살피고 이웃들을 인터뷰하며 정주의식과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마을계획실천단 워크숍을 통해 총 33개의 안건이 마을의 공감과제로 도출됐다. 뒷산 아래 빈 공간에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뒷산에 생태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다정 씨는 "아이들 관점에서 보행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주차문제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결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실천단 워크숍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네한바퀴 프로그램도 주말에 따로 진행됐다. 조를 짜서 동네를 도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꼼꼼히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동네에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의견,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최재진 학생은 "우리 동네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청소년들이 쉴 곳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1동 마을계획 만들기 기획단 이영임 씨는 "이번에 열리는 300인 원탁회의의 목표는 마을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변하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누구나 동네에 살면서 조금씩 불편한 점들을 느꼈을 텐데, 주민들이 정주의식과 공동체의식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사1동 주민센터 (☎ 031-481-5532)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전한 사회만들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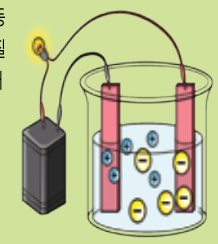
장마철의 복병
감전사고

여름철 감전 사고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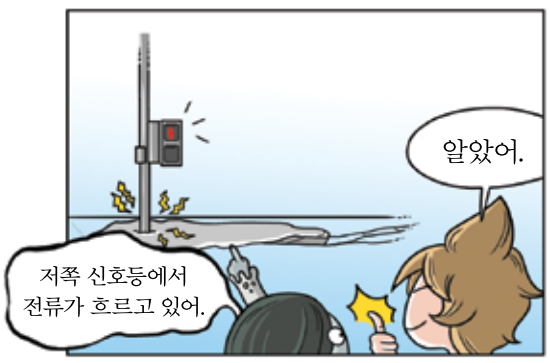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69명. 그런데 그중 40.5%인 109명이 7월 사이에 사고를 당했답니다. 여름철 감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겠지요?

왕박사의 한마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이 장마철 감전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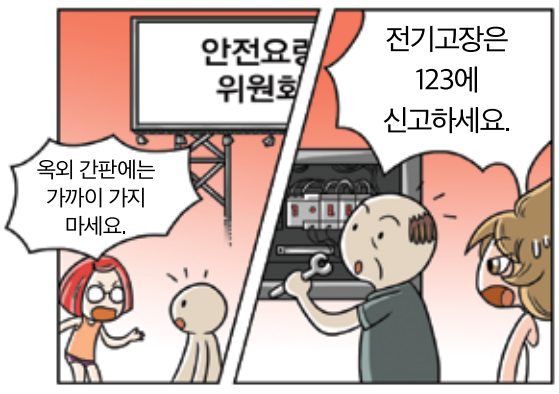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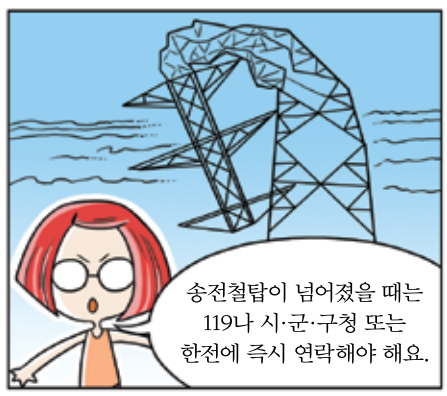
비 속에는 암석이나 금속에서 나온 미량의 원소 등 수십 종 이상의 물질이 녹아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 또는 (-)전하를 띤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때문에 전지와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의 몸에도 전류가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전류가 약 20배 정도 잘 통한다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전사고 대처법

- 맨손으로 감전당한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 고무장갑이나 나뭇가지 등 전류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를 사용합니다.
- 비상 시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 집이 침수되었다면 물을 퍼내기 전 반드시 배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내립니다.





메르스,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